

4개팀 모두 2위 가능... 오늘 최종전서 PO직행티켓 '판가름'

KT, 2연승 하면 자력 2위 가능해

LG는 최종전 잡고 KT 패해야해

키움·두산도 아직 희망 남아 있어

LG 트윈스와 KT 위즈가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무너지면서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이 걸린 2위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장기 레이스의 주인공은 이들의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인 30일에야 갈리게 됐다. LG는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전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6-7로 패했다. 4회까지 6-0으로 크게 앞서며 기분 좋게 정규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마무리 하는 듯 했던 LG는 한화의 거센 추격에 내리 7실점, 거짓말 같은 역전패를 당했다. KT 역시 KIA에 3-4로 덜미를 잡혔

다. 1-3으로 끌려가던 9회초 2점을 낸 것까지 좋았지만 연장 10회 수비 실책이 빌미가 돼 터커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았다. 현재 2위는 79승4무60패의 LG다. 하지만 매직넘버는 3위 KT(80승1무61패)가 갖고 있다. KT는 한화와의 잔여 두 경기를 모두 잡으면 한 경기를 남겨둔 LG의 행보와 관계없이 2위 경쟁에서 웃게 된다. 두 팀에 비해 확률은 낮지만 4위 키움 히어로즈(80승1무62패)와 5위 두산 베어스(77승4무61패)도 희망이 남아 있다. LG가 최종전에서 발목을 잡히고

KT가 1패라도 하면 키움이 최종 두산 전 승리로 2위를 차지할 수 있다. 순위표에서 가장 뒤져있는 두산은 KIA, 키움을 모두 꺾은 뒤 상위팀들의 결과를 지켜봐야한다. 이번 주초만 해도 와일드카드 결정전 1승 어드밴티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던 키움과 두산의 마지막 경기에서 2위 주인공이 탄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마지막까지 승부를 걸다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밀릴 경우 당장 이를 뒤 가을야구를 시작한다는 부담을 떠안게 되지만, 타킷이 시야에 들어온 만큼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팀당 남은 경기는 1경기 혹은 2경기. 그림에도 아직 2-5위의 얼굴은 결정되지 않았다. 가을야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4개팀의 자리다툼이 KBO리그 막판 레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뉴스



'22년 삼성맨' 권오준, 은퇴 선언... 오늘 마지막 경기

삼성, '4EVERLION5' 주제로 은퇴 행사 진행



22년 동안 삼성 라이온즈에서만 뒀던 사이드암 투수 권오준(40)이 은퇴를 선언했다. 삼성 구단은 "22년 동안 삼성의 파란 유니폼을 입었던 권오준이 3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올 시즌 최종전에서 은퇴경기와 은퇴식을 치른다"고 밝혔다. 1999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전체 6순위로 삼성 유니폼을 입은 권오준은 22년 동안 오로

지 삼성에서만 뒀다. 2003년 1군 무대를 밟은 권오준은 28일까지 통산 592경기에 등판, 37승 25패 87홀드 평균자책점 3.64를 기록했다. 삼성 프랜차이즈 역사상 투수 출장 경기 수는 2위, 홀드는 3위다. 특히 권오준은 세 차례나 팔꿈치 인대절합 수술을 받고도 복귀, 불사조 같은 모습을 자랑했다. 권오준은 삼성이 2000년대 중반 왕조를 구축했을 때 핵심 불펜 요

원으로 활약했다. 권오준과 권혁, 오승환 등이 버티 삼성의 불펜은 '절벽 불펜'으로 불렸다. 2004년 마당쇠 역할을 하며 11승 5패 2세이브 7홀드 평균자책점 3.23을 기록한 권오준은 이듬해인 2005년 17세이브를 올렸고, 2006년에는 셋업맨으로 뛰며 32홀드를 챙겼다. 권오준은 삼성이 두 번째 왕조를 연 2011년과 2012년에도 두 자릿수 홀드에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 올 시즌 16경기에서 승리없이 2패 평균자책점 8.62에 그친 권오준은 결국 은퇴를 택했다. 삼성 구단은 30일 경기 전후 '4EVERLION5'를 테마로 한 은퇴식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NC전에 앞서 권오준의 '마지막 출근길'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상영하며 양 팀 선수단 대표가 꽃다발을 증정한다. 시구와 시타는 아들 권혁준군과 권도형군이 하며 권오준이 공을 받는다. 권오준은 실전 등판에 나서 팬들과 인사를 나눈다. 과거 권오준이 사용했던 등장곡도 다시 한 번 삼성 라이온즈파크에 울려 퍼질 예정이다. 경기를 마친 후 선수 헌정 영상이 전광판을 통해 송출되고, 선수단과 구단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한다. 권오준은 고별사를 낭독하고, 마운드에서 작별 세리머니를 펼친 뒤 유니폼을 반납한다.

김민정기자

눈부신 활약 최지만, 내년 시즌 좌완투수 극복 속제

좌완투수 상대 6타수 불과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29)이 의미 있는 시즌을 보내고 2020년을 마감했다. 최지만은 지난 2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월드시리즈(7전 4선승제) 6차전에서 1루수 겸 1번타자로 선발 출전, 2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시리즈 전적 2승3패로 버락 오바마에 물렸던 탬파베이는 6차전에서 최지만을 선봉장으로 투입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했다. 최지만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팀이 기대했던 장타도 나오지 않았다. 탬파베이는 타선의 침묵 끝에 1-3으로 석패했다. 창단 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했지만, 왕좌 탈환은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최지만은 올해 정규시즌에서 부상과 부진 등으로 42경기에 출전, 타율 0.230(122타수 28안타)에 3홈런 16타점을 올리지 못했다. 또한 탬파베이의 철저한 플레툰 시스템에 따라 좌타자인 최지만은 좌완투수가 나오면 벤치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쯤짜리 타자라는 오명도 들었다. 올해 최지만은 좌완투수를 상대로 6타수 2안타 3볼넷에 그쳤다. 경기에서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이 1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코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2020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4선승제) 5차전에서 8회초 동점 솔로포를 때려낸 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속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 컨디션 유지하기 어렵다. 게다가 좌완투수를 피할 수록 극복은 더 어려워진다. 포스트시즌도 예외는 없었다. 최지만은 좌완투수가 선발로 나오면 선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최지만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는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까지 12경기에서 타율 0.290(31타수 9안타) 2홈런 4타점 5득점을 기록해 탬파베이를 월드시리즈로 이끌었다. 그러나 최지만은 월드시리즈 무대

에서 부진해 아쉬움을 남겼다. 9타수 1안타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월드시리즈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안타를 때려낸 것에 만족해야 했다. 탬파베이의 월드시리즈 팀 타율 역시 고작 0.216이었다. 이런 수치로 월드시리즈 우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지만에게 올해는 아쉬움과 설렘이 공존한 시즌이었다. 주축 타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지만의 내년 시즌 속제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좌완투수 극복이다.

서선욱기자

여자농구 박지수, 김소니아 7표차 제치고 1라운드 MVP

기자단 투표 총 68표 중 36표 획득해 선정

여자프로농구 청주 KB국민은행의 센터 박지수(193cm)가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9일 "박지수가 기자단 투표에서 총 68표 중 36표를 획득해 29표의 김소니아(우리은행)를 7표 차이로 따돌리고 1라운드 MVP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박지수는 1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35분29초를 뛰며 경기당 27.8점 15.8리바운드 4.2어시스트 3.4블록슛이라는 괴물같은 활약을 펼쳤다. 득점, 리바운드, 블록슛, 필드골 성공률, 공헌도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특히 14일 부산 BNK전에선 한 경기 개인 최다인 33점을 올렸다.

이번 시즌 외국인선수 제도가 폐지되면서 박지수의 존재감이 부쩍 커진 장면이다. 박지수는 개인 통산 9번째 1라운드 MVP 선정으로 현역 선수 중 최다 수상자가 됐다. 우리은행의 가드 박혜진이 8번 선정됐다. 통산 최다 1라운드 MVP 수상자는 은퇴한 신정자로 12번이다. MVP 투표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김소니아는 심판부, 경기 운영 요원, TC, 감독관 투표로 선정하는 기량발전상을 받았다. 5경기에서 평균 37분 59초 동안 경기당 23.4점 10.8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다.

김희희기자



여자프로농구 청주 KB국민은행 박지수

메시, 호날두 빠진 유벤투스 상대 1골 1도움 활약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2-0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빠진 유벤투스(이탈리아)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바르셀로나(스페인)는 2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G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메시의 1골 1도움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2연승을 거둔 바르셀로나는 조 선두로 올라섰고, 유벤투스는 1승1패(승점 3)로 2위에 자리했다. 이날 경기는 조 추첨 때부터 메시와 호날두의 '메호대전' 성사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호날두가 빠지면서 대결은



바르셀로나(스페인)는 2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G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리오넬 메시의 1골 1도움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이뤄지지 못했다. 호날두는 최근 세 차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에서 출전할 수 없

었다. 메시는 호날두가 없는 그라운드에서 중흥무진 활약했다.

뉴스